



어떨 때는 가족들 때문에 짜증이 나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가족들을 친절히 대하게 도와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. 그리고 가족들을 안아 주세요.
노아 에프, 10세, 호주 퀸즐랜드



줄리아: 가족들과 함께 좋았던 때를 떠올리려고 노력하세요.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

브루나: 가족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용서해요.
줄리아 및 브루나 알, 13세 및 8세, 브라질 상파울루



제 동생이 짜증나게 할 때, 저는 동생 침대를 정리해 주고 맛있는 것을 사 줘요. 또 카드를 만들어 주고, 집안일도 하며, 기도를 하죠. 그러면 성신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.
아델라인, 9세, 미국 테네시 주



저는 기도하고, 가정의 밤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겠어요.
루이사 알, 9세,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



줄리아: 저는 가족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. 짜증이 날 때면,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잘해 줘요. 그렇게 구주를 따를 수 있고,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.



다린: 그냥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세요.
줄리아 및 다린 에스, 8세 및 6세, 미국 뉴멕시코 주

다음 질문

.....
“저에게는 형(오빠)이 있는데,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”

2017년 4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주세요. Liahona.lds.org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liahona@ldschurch.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. (이메일 제목에 “Question Corner”라고 써 주세요.) 부모님의 허가서도 같이 보내야 한답니다.

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,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.